

numbers 제 88호



주요 내용

2021. 03.19

- 이번 주 주제 : [소비 패턴으로 보는 2030세대 특징]
 - 2030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조사(2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감,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30세대, ‘내 인생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2010년 이후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20-30대 청년 세대의 우울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였다.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가 일명 ‘90년대생’ 또는 ‘밀레니얼세대’, ‘Z세대’ 등으로 분류되는 그룹이다. ‘삼포세대’로 구분했을 시기에 2030세대는 갖고 싶어도 손에 짚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밀레니얼세대’로 구분하는 지금 세대는 자발적 선택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들은 시장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로서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고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과 SNS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즐긴다.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 노후 준비, 재테크 등에 관심을 보이며 소비와 투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을 빠르게 판단하는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주식 투자’를 공정 경쟁의 장으로 인식한다. 일명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세상이 아닌, 누구나 공정하고 동일한 게임 규칙 안에서 가진 자원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해 현실적 플레이로 살아남기를 원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88호에서는 ‘2030세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소비 태도를 살펴보면, 2030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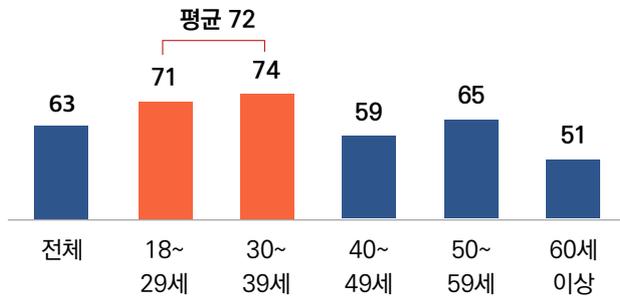


2030세대,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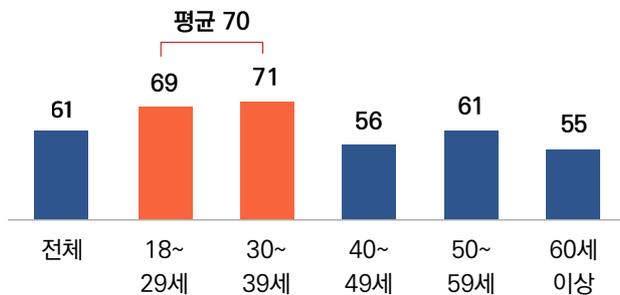
- '2030세대'는 동시대 다른 연령대, 지금까지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물질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을 소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장자본주의를 몸으로 체득한 '2030세대'는 물질 소유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 목표이다'에 대해 '20대'가 71%, '30대'가 74%로 응답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면 행복해질 것이다'에도 각각 69%, 71%로 응답해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물질 소유에 대한 인식('그렇다' 응답률**) (%)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0년 주식 열풍은 코로나19 때문일까?', 2020.12.30.
(전국 만 18이상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11.27.~11.30)

**'그렇다'는 '매우+약간' 수치임(5점 척도 질문)

2



코로나 시대,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 2030세대가 절반 차지!

- 2020년 한 해 국내 3대 백화점의 명품 구매는 '2030세대'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전 연령 중에서 '2030세대' 구매 비율은 51%였고, 롯데백화점은 46%를 차지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명품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38%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8%, '40대'가 24% 등의 순이었다.
- '2030세대'는 온라인에 친숙하고 특히 개인 SNS 통해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고(일명 플렉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유명 아이돌 또는 인플루언서(SNS 상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가 명품을 입고 소지하는 것을 쉽게 접하고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030세대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율

(%)



*자료 출처 :해럴드경제, '등골 휘어져도 플렉스... 백화점 명품 큰손은 2030', 2021.03.08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08000683>)

●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5년 전보다 53% 성장!

-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는 1조 5,957억 원으로 2019년 1조 4,370억 대비 11% 성장했고, 2015년 1조 455억 원에 비하면 5년 새 53% 성장했다. 이러한 명품 소비의 증가에는 '2030세대'의 소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그림]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



*자료 출처 :해럴드경제, '등골 휘어져도 플렉스... 백화점 명품 큰손은 2030', 2021.03.08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08000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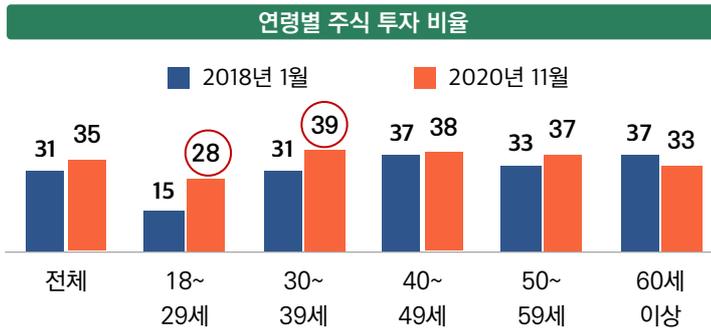
3



‘현재 주식 투자 하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30대’가 39%로 가장 높아!

- 주로 40~50세대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였던 주식 투자가 최근 ‘2030세대’의 주식 투자 비율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기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 중 ‘30대’가 39%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초와 비교하면 8%p 상승하였다.
- 주목할 점은 ‘20대’는 28%였는데 2018년 초 대비 13%p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주식 투자 비율(연령별, 2018년 1월 vs 2020년 11월)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0년 주식 열풍은 코로나19 때문일까?’, 2020.12.30. (전국 만 18이상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11.2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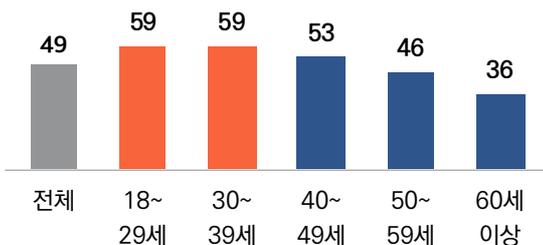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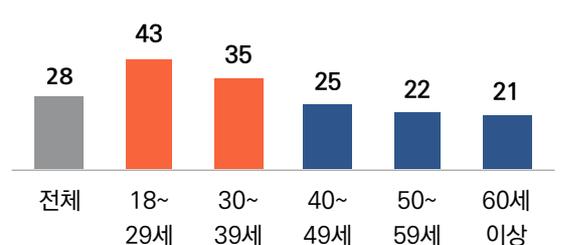
2030세대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관심 늘었다!’ 59%

- ‘2030세대’ 5명 중 3명(59%)이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관심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 연령에서 가장 높았는데, 예적금으로 재산을 늘릴 수 없는 제로금리시대에서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
- ‘2030세대’는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0대 43%, 30대 35%)도 타 연령에 비해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연령별 관심도 변화 (%)
(‘늘었다’ 응답률)



[그림]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에 대한 이미지 변화 (%)
(‘긍정적으로 변했다’ 응답률)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0년 주식 열풍은 코로나19 때문일까?’, 2020.12.30. (전국 만 18이상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11.2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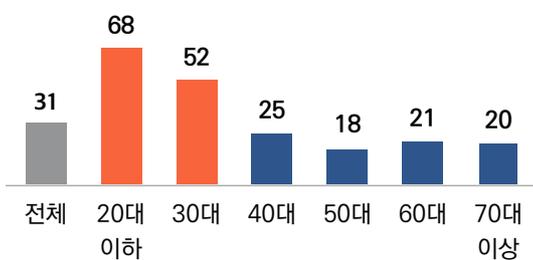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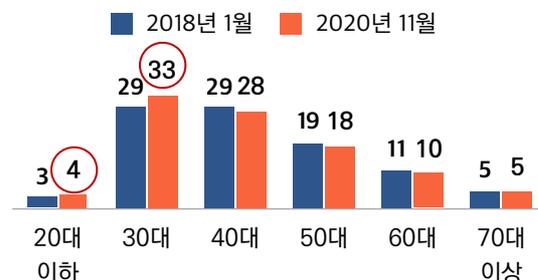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30세대가 주도!'

-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세대'는 주식 투자 뿐 아니라 아파트 구매에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와 관련 '2030세대'의 구매 증가폭이 큰데, '20대'가 2019년 대비 68% 증가하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가 52%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서울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에서 연령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0대'가 주도하고 있는데, 2020년 '30대'가 3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2020년 서울 아파트는 2030세대에 있어 재테크 수단이자 욕망의 실현으로 기억될 한 해이다.

[그림]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 아파트 구매 증가율*(연령별) (%)



[그림] 서울 아파트 구매자 비중** (연령별, 2019 vs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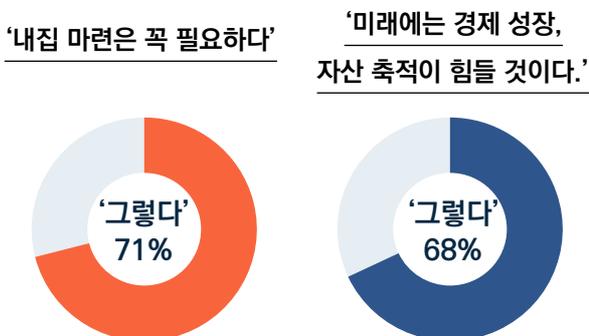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2021.2.10.(2019.01~2020.12)/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 서울아파트 구매율에서 KOSIS가 제공한 '기타' 비율은 제외한 수치임

● 2030세대, '내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71%

- '2030세대'의 아파트 매매율 상승에는 '미래 자산 축적에 대한 비관적 인식'(68%)이 반영된 현상인데, 특히 '내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71%로 응답해 자산 축적에 대한 안정적 수단을 부동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 재무적 목표 또한 '주택 자원 마련'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은퇴 자산 축적'이 50%로 나타나, '2030세대'의 자산 축적과 은퇴 자산 등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 2030세대 재정적 현실 인식



[그림] 2030세대 재무적 목표 우선 순위 (3순위까지 응답) (%)



*자료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밀레니얼 세대, 신 투자 인류의 출현', 2020.7.29. (전국 만 25-39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한국리서치, 2020.05)

6



2030세대 2020년 대출 시장 이끌어!

- 주택,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재력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는 대출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 '2030세대'의 2020년 3/4분기 말 가계 대출 잔액 총액은 409.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9% 증가하였는데, 전체 가계 대출금 증가율 7%(1,682.1조 원)보다 높았다. 특히 전체 가계 대출금 증가액인 27조 원에서 '2030세대'가 차지한 금액은 11.5조원으로 43%를 차지했다.
-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2030세대'의 대출액은 상승하고, 비율도 전체 가계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그림] 2020년 3/4분기 말 가계 대출액 상황(전체 가구 vs 203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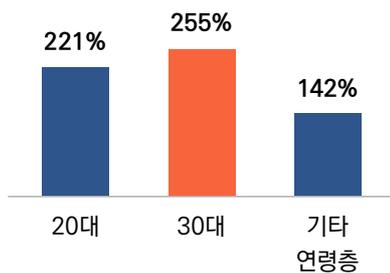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12.24

● 2030세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0대'가 전 연령대 중에서 255%로 가장 높아!

- '2030세대'의 적극적인 대출로 인해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대'는 221%,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255%를 차지했다.

[그림] 2030세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2020년 3/4분기)



*자료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12.24

7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 부부 ‘결혼 비용’ 총 2억 3,600만 원 중 주택 비용이 82% 차지해

- 듀오 웨딩이 발표한 ‘2021년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결혼한 신혼 부부가 결혼하는 데 총 2억 3,600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주택’이 1억 9,300만 원(82%)으로 가장 많았고, ‘혼수’ 1,300만 원(6%), ‘예식홀’이 900만 원(4%) 등의 순이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구입 평균액은 전국 평균액을 웃도는 2억 5,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2030세대’가 재테크와 주택 마련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처럼 결혼 시 주택 비용이 82%를 차지하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년 내 신혼 부부 결혼 비용(항목별,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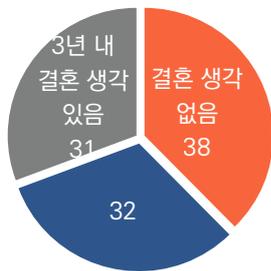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듀오웨딩&엠브레인, '2021 결혼비용 보고서', 2021.02.25. (최근 2년내 결혼한 신혼 부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0.23.-11.4)

● 2030세대, ‘결혼 생각 없다 38%’

- 주택 마련 등 2억 이상의 결혼 비용이 필요한 만큼 ‘2030세대’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각한다. 2030세대 중 미혼 남녀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38%가 ‘결혼 생각 없다’고 응답했다.
- 특히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결혼 생각 없다’ 응답률이 높았는데 30대 후반으로 가면 ‘미혼 여성’ 절반 이상(53%)이 결혼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030세대 미혼 남녀 결혼 의향률** (%)



앞으로 결혼
생각 있음

[그림] 미혼 남녀 연령별 ‘결혼 생각 없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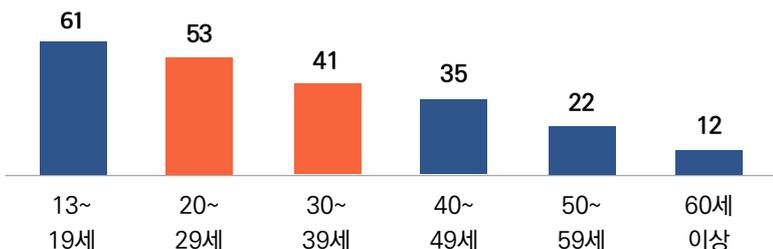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층의 생애전망 실태조사'(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1), 2019.12. (전국 만 20~39세 청년 6,35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유배우자 제외 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비율을 재 계산한 수치임, '결혼할 생각 없음'은 '전혀+아마도' 수치임

● ‘결혼하면 자녀 가져야 한다’, 20대의 절반 이상이 반대!

- ‘2030세대’에게 자녀를 갖는 것 역시 결혼과 마찬가지로 필수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의 하나이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53%, ‘30대’는 4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 이처럼 결혼/자녀 관련한 사항에서 기성세대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에 대해 ‘2030세대’는 더이상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반대 의견(연령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전국 18,5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750명, 면접조사/자기기입식 및 온라인 조사, 2020.05.13-2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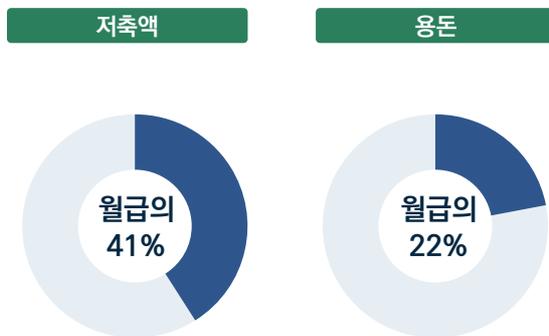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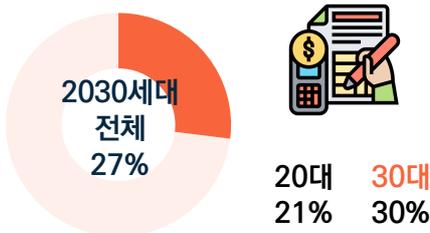
2030세대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 나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겠다!

- ‘2030세대’는 한동안 유행했던 ‘올로’(YOLO, 인생은 한 번 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소비하겠다)와 조금 다른 양상의 소비 패턴을 보이는데, ‘2030세대’ 직장인의 27%는 ‘나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이다’고 응답했다. ‘파이어족’은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20대와 30대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극단적인 저축과 소비 억제를 통해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 이들의 ‘저축 비율’은 월급의 41%에 달했고, ‘용돈 비율’은 저축의 절반인 22%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나는 파이어족이다’(2030세대 직장인 대상, ‘그렇다’ 응답률)

[그림] 파이어족 월급 대비 저축액 vs 용돈

‘나는 파이어족이다’



*자료 출처 : 인크루트 보도자료, ‘직장인 4명 중 1명, 내 꿈은 파이어족... 은퇴 이후엔 창업·주식·휴식’ 2021.02.03.(전국, 2030 남녀 직장인 707명, 온라인 조사)



시사점

이번 88호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경제 소비 활동은 기성세대에게는 놀라운 현상이었다. 기성세대는 20~30대 시절에 되도록 대출을 받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내집부터 마련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재테크에 대한 '2030세대'의 높은 관심은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였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의 준말로써 '2030세대'가 은행 대출을 비롯하여 자기가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집을 산다는 현상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런 '2030세대'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영악하다', '자기 이익에 너무 민감하다'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막상 '2030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걸로 드러내기 꺼리는 '물질주의자'라는 성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4쪽).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족해 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에 72%가 동의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에 70%가 동의할 정도이다(4쪽). 에리히 프롬이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2030세대'는 반대로 서슴지 않고 '소유'를 선택할 것이다.

'2030세대'의 물질주의적 성향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2030세대'는 24년 전에 일어난 IMF 경제 위기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도태했다.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직원에게는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차등 대우를 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는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 및 우리의 가치 체계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계기였다. 각자의 생존이 중요해지고, 경제적 보상에 따라 사회적 삶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확고한 가치 체계로 자리 잡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2030세대'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가치 체계를 몸으로 습득하며 자라난 세대이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실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가치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2030세대는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오죽하면 '현타'('현실자각타임'의 준말)라는 말을 만들면서까지 현실에서의 자기를 일깨울까. 그래서 물질주의는 '2030세대'에게는 현실주의이며 실용주의이다. 경쟁을 통한 성공이나 낙오냐 라는 사회적 체계 앞에서 2030세대는 성공을 위한 현실 적응의 방법으로 물질주의를 택한 것이다.

'2030세대'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보면 종교는 그들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2030세대'의 탈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 '2030세대'의 가치관을 갖게 한 사회 구조를 만든 것이 기성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0세대'의 가치 체계를 우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 메시지를 고민해야 한다. 메시지의 내용이든 혹은 방법이든 2030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야 기독교의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감,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껴!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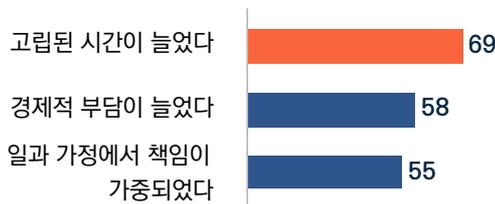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조사(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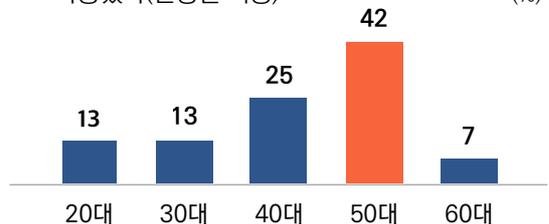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감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껴!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 삶의 변화가 큰데, 국민의 69%는 ‘고립된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58%는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 55%는 ‘일과 가정에서 책임이 가중되었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높은 부담감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립이 늘고, 경제적 부담이 늘고, 역할책임이 가중된다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연령 별로 분석해 보면, 50대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50대 연령층의 삶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황 변화 (%)



[그림] 고립 시간 늘고, 경제적 부담 늘고, 역할 책임 가중됐다(연령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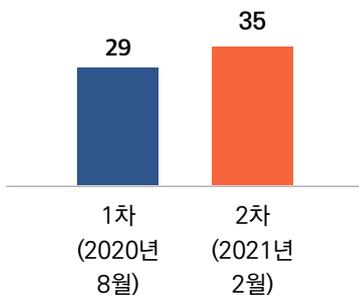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2021.03.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84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121.0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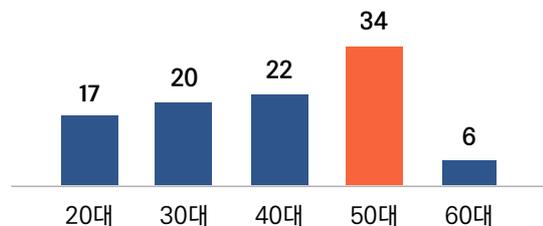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 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 응답자에게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외상 직후 스트레스 측정도구(Peri Traumatic Distress Inventory, PDI)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 국민의 35%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 정도(고위험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8월 조사 때보다 6%p 증가했다.
-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연령층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외상 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즉각 도움 필요) 비율 변화 (%)



[그림] 코로나19 외상 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연령별 비중) (%)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2021.03.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84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121.0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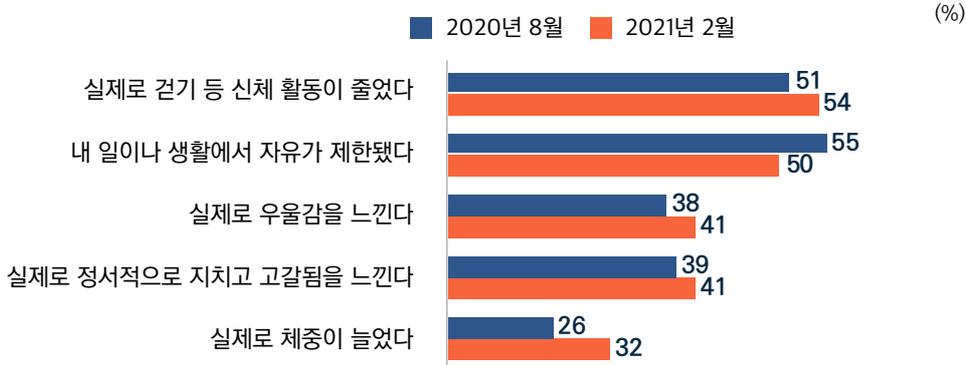
2



우리 국민, 작년 8월 대비 신체 활동 줄고, 체중 늘어나고, 우울감 증가했다!

-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실제 경험을 신체, 정신, 사회 관계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걷기 등 신체 활동이 줄었다’가 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생활에서 자유가 제한됐다’ 50%, ‘실제로 우울감을 느낀다’ 41% 등의 순으로 전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 동일 문항을 적용한 지난 8월의 조사와 비교하면 ‘신체 활동 감소’, ‘우울감 증가’, ‘체중 증가’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체, 심리, 사회적 일상 변화 (1차조사 2020년 8월 vs 2차 조사 2021년 2월, 상위 5위)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2021.03.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84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121.0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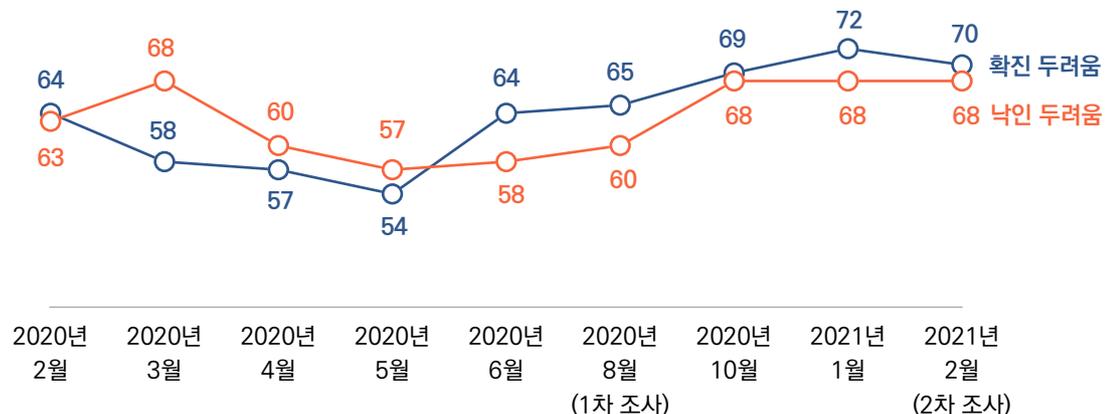
3



감염 시 확진자라서 비난/피해받는다 ‘낙인에 대한 두려움’ 점점 증가!

- ‘내가 확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확진자라서 비난/피해받는 것(낙인)’에 대한 두려움의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확진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이 과반인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낙인 두려움이 작년 10월 이후 확진 두려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코로나19 확진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 추이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2021.03.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84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121.0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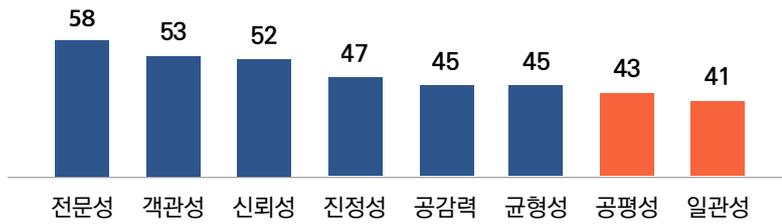
4



정부와 방역 당국의 코로나 관련 소통 평가, ‘공평성’과 ‘일관성’이 다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받아!

- 지난 1년 간 정부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소통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 영역이 높은 편이고, ‘일관성’과 ‘공평성’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 전체적으로 작년 8월 대비 모든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그림] 정부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소통 평가(긍정률) (%)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2021.03.08.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84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121.02.08.~17.)

**긍정적, 보통, 부정적 등 3점 척도 질문으로 여기서는 ‘긍정률’만 제시하였음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
경
제

[자살 유가족 우울 위험 18배 ↑ ...'원스톱 지원' 절실](#)

KBS_2021.03.15.

["우울증 환자 90%, 도움 구하지 않아...사회적 부담 심각"\(아태지역 6개국 조사\)](#)

연합뉴스_2021.03.17.

[아동학대 민감도 높아지고 주거·안전 지표 나빠졌다](#)

한겨레_2021.03.08.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 조사](#)

연합뉴스_2021.03.16.

[통계청, 결혼 이혼 통계 발표 : 결혼 역대 최소 21만건, 황혼이혼 증가](#)

연합뉴스_2021.03.18

["디지털 게임하는 중장년층 웰빙지수 높다"...고립 고정관념 깨](#)

연합뉴스_2021.03.18.

[대·중소기업 월급 차이...1999년 55만원→2019년 231만원](#)

머니투데이_2021.03.14.

환
경

['미세먼지 수치'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위?](#)

동아일보_2021.03.14.

[음식 버리면 재앙](#)

경향신문_2021.03.14.

[초콜릿 여섯 알에 포장쓰레기 14개가 나왔다](#)

한국일보_2021.03.17.

교
육

[학력 대물림 이유 있었네...母 교육수준 ↑ 사교육비 ↑](#)

뉴스시스_2021.03.16.

[학생없는 캠퍼스, 1~2명 강의 수두룩... 실망한 신입생들 자퇴도](#)

조선일보_2021.03.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소 꺼 안고 눈물 터뜨리는 사람들...농장마다 예약 짝 찼다](#)

중앙일보_2021.03.14.

["코로나19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는"](#)

세계일보_2021.03.17.

[OECD 국가의 코로나19 대응평가...한국 4개 지표 1위](#)

연합뉴스_2021.03.12.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BBC News 코리아_2021.03.10.

정
치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

한국일보_2021.03.15.

[지지율 격차 이게 맞아? 보궐선거 흔들는 ARS 여론조사의 함정](#)

한국일보_2021.03.18.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 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베다니교회, 서대문 ESP, 예향교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87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제 83호**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 제 85호**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 제 86호** | "코치님이 나무베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 | 초등학교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현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 제 87호** |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꼴로 '미세플라스틱' 먹고 있다! | 유튜브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

* 연구소 소식

지난 3월 17일, 본 연구소와 기아대책은 교계 공동 연구 사업, 교육 사업,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